**교회 가는 길 핀 꽃들을 보며 수를 놓다.**

프랑스 자수 강사 최준희집사

지구촌 평생교육원에서 야생화 자수를 시작으로 프랑스 자수 수업을 진행 한지 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해부터 사정이 있어서 자수 수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서 5년동안 회원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 어머! 수 놓아서 선물하면 좋겠네요 ”

수강생분들과 수를 놓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였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놓은 수를 나누고자 하는 고운 마음이 전해지며, 따듯한 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오래전 지구촌 교회를 등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 보던 중에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 우려들을 덜어내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은 오랜만의 잡아보는 바늘로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며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즐기며, 완성된 소품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 또한 도전을 받게 되어 수업을 진행하며, 새로운 도안과 소품을 준비하게 되고, 서로 서로의 다양한 완성품을 보며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마다 아름다운 달란트를 각자에게 내어주심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들 이었습니다.

회원분들중에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과 지구촌 교우 타 교우 또 마음이 상하신 분 몸이 불편하신분들이 수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주 같은 시간에 모이고, 2시간동안 수를 놓으며, 자신의 얘기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분들 중 한 분은 무기력한 마음을 추스르며, 하루 만에 완성해서 자수 수업을 회원분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수 놓은 작품 사진을 부지런히 올려 주시며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성들여 수놓은 소품 하나하나를 주변분들에게 나눌 뿐 만 아니라 전도 선물로 제작하시는 회원분들도 계셨습니다.

수업을 받으시고, 블레싱에서 초대되어 시간이 걸렸지만 교회에 등록하게된 회원분들, 등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추억을 주신 회원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아서, 교회 가는 길에 꽃들을 바라보며 가곤 했습니다.

교회 입구의 벚꽃들, 길가의 민들레, 애기 옹풀, 개망초, 패랭이 ,가시 모빌 이름 모를 꽃들을 바라보며, 그 색에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바라봅니다.

수를 놓으며, 그 색을 그 모양을 아무리 내어 보려 해도 벽에 부딪히고 할 때면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함과 아름다움에 항복할 때도 있습니다. 감탄이 나오는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수로 표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5년동안 함게 동역했던 지구촌 평생교육원에서는 지역사회 복음화와, 평생교육원을 찾아오시는 회원들이 자신만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와 성장을 제공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지금은 함게 동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3년동안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같이 전시회에 참여 해주셨던 집사님들과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힐링이 되었다는 말슴을 전해주실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림의 축복을 주신 자연을 조금이나마 아끼며, 보존함에 다음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